

여자청소년의 신체 관련변인, 자존감, 내적통제력이
섭식장애 행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Female Adolescent Body-Related Variables, Self-Esteem
and Internal Control on Eating Disorder Behavior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조 교 수 김 갑 숙**

한국발달상담연구소 부산센터

소 장 강 연 정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 and Public Health Yeungnam Univ.

Assistant Professor : Kim, Gab-Sook

Korean Development Counseling Institute Busan Center

Director : Kang, Yeon-Jeong

<Abstract>

This study purports to understand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between eating disorder behavior of female adolescents and their body-related variables(concerning the degree of diet regime, weight control, body satisfaction, and obesity), self-esteem and internal control, by checking three sub-categorized behavior of eating disorders of diet behavior, bulimia behavior, and eating control behavior. The sample group used for the study consisted of 190 female high school students and 292 female university students; measurement devices used for the study were those of body-related variables, self esteem and internal control, and eating disorder behavior; and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χ^2 , t-test, Pearson's correlation, regress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university students and high school students regarding their body satisfaction, weight control experience, and self esteem. University students are more satisfied with their body, have higher self esteem, and control their weight better than high school students. Second, diet behavior shows a correlation with the degree of diet interest, weight control experience, and body satisfaction. Body satisfaction and internal control proved to be correlated with bulimia behavior, while weight control experience, obesity, and self esteem were correlated with eating control behavior. Third, the variables that showed a direct influence on diet behavior as an eating disorder are diet interest, weight control experience, body satisfaction and obesity, in that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variables is 60.7% with the highest mark on obesity. The variables that showed effects on bulimia are body satisfaction and internal control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2.8%. Indirect variables effecting bulimia include objects, diet interest, body satisfaction, and self esteem. The variable with a direct influence on eating control behavior was self esteem with and explanatory power of 4%, whereas the variables of objects, diet interest, body satisfaction, weight control experience, and internal control were all indirectly correlated with eating control behavior.

▲주요어(Key Words) : 섭식장애행동(eating disorder behavior), 다이어트행동(diet behavior), 폭식행동(bulimia behavior), 섭식억제행동(eating control behavior), 자아존중감(self-esteem), 내적통제력(internal control)

* 이 논문은 2006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206-A-054-024).

** 주 저 자 : 김갑숙 (E-mail : pinakim@ynu.ac.kr)

I. 서 론

최근 미에 대한 서구적 가치관이 우리사회에 만연하면서 날씬함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하여 외모지상주의가 도를 넘고 있다. 그리하여 현대여성들은 마른 몸매를 유지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체중조절을 위해 다이어트와 그 외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날씬함에 대한 관심은 비만인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체중이나 저체중인 사람까지도 마른 체형을 유지하기 위한 욕구가 증가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특정연령이나 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다. 즉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청소년이나 성인초기에 민감하게 나타난다.

특히 청소년기는 자신의 외모 특히 체형에 대한 관심이 많고 자신의 신체발달에 대해 남의 이목을 의식하여 부끄러워하며 날씬한 것을 선호하는 사회인식으로 상처받기 쉬우므로 부정적인 신체상을 가지게 될 위험이 가장 큰 시기이다(정승교, 1997). 여성들은 사춘기에 이르러 신체의 변화와 함께 외모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증가하게 되면서 남성보다 외모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며 스스로를 덜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어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더 심해진다. 신체에 대한 불만족은 다이어트 행위를 하도록 자극하는 요인이 되며 무분별하고 지나친 다이어트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은 섭식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 즉 지나친 다이어트 후 음식에 대한 욕구를 감당할 수 없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음식물을 섭취하는 폭식행동을 하게 되고 다시 원래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구토나 하제를 남용함으로써 거식증이나 폭식증과 같은 섭식장애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Heatherton(1991) 등의 연구에 의하면 섭식억제란 현재보다 낮은 체중의 획득과 유지를 위해 음식물 섭취를 억제하는 것으로 청소년기에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Polivy와 Herman(1985)은 섭식억제는 폭식이라는 또 다른 문제있는 섭식태도를 유발할 수 있는 섭식태도 중의 하나라고 했다. 이는 임상집단에서 만이 아니라 정상집단에서도 이상섭식행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상집단에서도 음식조절이 빈번하고 섭식억제와 폭식의 경향이 높다(이임순, 1999).

섭식장애는 많은 신체적 심리적 증상과 징후를 초래한다. 신체적인 측면에서는 전해질 불균형, 치아 에나멜의 부식, 영구적인 뇌손상, 불임, 만성적인 허약, 기관손상과 심부전을 가져오게 된다. 또한 섭식장애자들은 사회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심리적, 성적 기능의 측면에서도 양가적이거나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고, 우울증을 비롯한 다양한 정신병리 증상들을 함께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Kinder, 1991).

이와 같이 청소년기에 섭식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섭식장애를 야기하는 원인과 기제를 탐색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섭식장애문제는 개인, 심리, 가족, 사회문화적 요인 등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아동기 성학대 경험, 다이어트 등의 경험 요인 등을 들 수 있고, 심리적 요인으로는 낮은 자아존중감, 신체에 대한 불만족, 완벽주의, 날씬한 이상적 모델의 내면화 등을 들 수 있다. 가족요인으로는 가족 내 섭식장애 유무, 무관심이나 지나친 밀착 같은 가족 내 상호작용의 특정패턴, 그리고 날씬해지라는 사회문화적 압력(Field, Camargo, Taylor, Berkey & Colditz, 1999; Stice & Agras, 1998; Stice, Cazzotti, Krebs & Martun, 1998, 김은정, 2004, 재인용) 등의 사회문화적 요인 등이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요인 중 본 연구에서는 다이어트 경험요인, 신체 관련요인과 자아존중감과 내적통제력을 섭식장애행동의 중요한 설명변수로 채택하였다.

Hill과 Bhatti(1995)는 체형에 대한 불만족과 날씬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섭식에 영향을 미치며 섭식장애로 발전하는 촉매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외모에 기초한 사회문화적 압력이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변수로 작용하며 사회가 신체적 매력과 날씬함에 가치를 두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비만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사회문화적 압력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Rodin et al., 1985, 김은정, 2004 재인용). 마른 체형을 여성의 이상적인 신체로 강조하여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다이어트 행동이 빈번하게 나타나며 능력보다는 외모가 사회적 성공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중매체를 통하여 더 가속화되고 여성은 날씬하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사회적 메시지는 여성에게 내재화되어 무리한 다이어트나 성형수술을 시도하게 한다.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20대 여성의 61.5%가 성형수술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조선일보, 2007. 2. 21일자). 날씬한 몸매를 강조하는 영상매체와 증가하는 다이어트 산업은 여성들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을 증폭시키면서 다이어트를 더욱 조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외모와 관련된 자기개념장애가 섭식장애와 관련되어(양경옥, 2004; Cash & Green, 1986; Markus et al., 1982; Mori et al., 1987; Sugarman et al., 1982) 섭식장애자들이 정상집단보다 부정적 자기개념을 나타낸다. 오숙현(1994)과 이성호(1997)는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한 집단이 만족하는 집단보다 섭식장애행동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신체불만족이 섭식장애의 중요한 예측요인임을 밝혔다.

심리적인 요인으로는 자존감과 자기통제력 등이 섭식행동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란 하나의 특별한 객체인 자아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자신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나 좋은 자질을 믿고 강조하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부족한 면과 좋지 못한 자질을 강조한다. Button과 그 동료들은(1996) 자아존중감이 섭식장애를 발생시키는 주요한 요소임을 주장하였으며 섭식장애자들이 정상인들에 비하여 자아존중감이 낮다는 점이 선행연구결과 밝혀졌다(Shisslak et al., 1990). 반복된 다이어트의 시도와 실패로 인하여 자신을 혐오하게 되고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Katz(1985), Grant와 Foror(1986)도 낮은 자존감이 체중을 줄이려는 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신경성 폭식증의 행동을 예언하는 주요요소라고 하였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섭식장애 행동은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김규민, 2000; 김미정, 1999; 이상선, 1993; 이성효, 1997) 낮은 자존감은 섭식장애의 취약한 심리변인으로 볼 수 있다.

자기통제력은 자신이 자신의 인지나 정서, 행동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기통제의 실패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특히 충동조절의 장애로 나타나기 쉽다. Miller와 Major(2000)는 '비만이 통제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체중감량을 함으로써 비만에서 벗어나려 함을 시사했다. 문한나(2003)는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충동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섭식장애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스스로 자기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자신의 통제수준이 주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양경옥, 2004)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결국 다이어트의 시도와 실패, 신체불만족도 등의 신체관련변인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고, 자기통제력은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과 관련지어 나타나는 성향으로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아존중감과 내적통제력은 개인의 행동과 사고를 결정해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섭식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섭식장애행동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영향을 미치는 변수 또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기존의 연구들은(김규민, 2000; 이성효, 1997; 정호선, 1997) 하위영역으로 분류하지 않고 섭식장애행동 전체로 분석하였다. 김은정(2004)의 연구에서는 이상섭식행동을 섭식억제, 음식에 대한 몰두, 섭식통제 등 3요인으로 분류하였으나 연구분석에서는 3요인을 포함하여 이상섭식행동 전체로 분석하고 있으며, 김미정(1999)의 연구에서는 정상섭식, 섭식억제경향성, 폭식경향성, 폭식집단으로 분류하여 대처방식과 자아존중감

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문한나(2003)의 연구에서는 다이어트, 섭식절제, 폭식행동으로 분류하여 연구하였으나 비만인에 대한 태도, 충동성, 체중조절효능감과 섭식장애행동과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그쳤다. 양경옥(2004)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섭식억제행동과 폭식행동으로 분류하여 자기불일치, 자기주의, 자기통제가 섭식억제 및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나,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섭식장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직·간접관계를 체계적으로 밝힌 연구는 부족하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섭식장애행동을 하위영역으로 분류하고 관련변인들이 섭식장애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경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섭식장애는 외모나 체형에 민감한 10~20대 청소년기의 여성에게서 많이 발견되고 있어(김미정, 1999) 청소년기의 여성을 대상으로 섭식장애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규민, 2000; 김은정, 2004; 박선주, 2000; 이성효, 1997; 이임순, 1999)와 여대생을 대상(김미정, 1999; 양경옥, 2004; 이상선, 1993; 정호선, 1997)으로 한 연구 등이 있으나 여고생과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여 대상자간의 차이를 비교한 것은 거의 없다. 그러나 여고생은 제도권 내에서 학교 교칙과 입시에 의해 구속적인 생활을 하는 반면, 여대생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개성을 중요시하며 특히 외모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시기이므로 두 집단 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고생과 여대생 간에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섭식장애행동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신체관련변인과 자아존중감, 내적통제력 등이 섭식장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섭식장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나아가 청소년들의 건강한 심리적, 신체적 발달을 돕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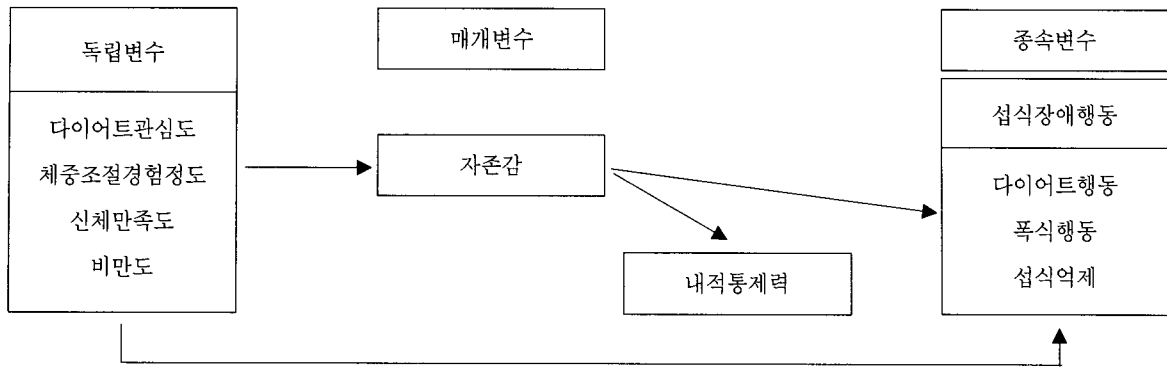
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이상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신체관련변인, 자존감, 내적통제력과 섭식장애행동은 대상자(여고생, 여대생)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신체관련변인, 자존감, 내적통제력은 섭식장애행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림 1> 연구모형

<연구문제 3> 신체관련변인, 자존감, 내적통제력이 섭식장애행동에 미치는 직·간접효과는 어떠한가?

2.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대구지역에 소재한 2곳의 실업계와 인문계 고등학교와 4개의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06년 6~7월 걸쳐 실시되었으며, 본 연구의 실시방법 및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숙지한 교과담당 교사 및 강사가 수업시간을 통하여 질문지 조사를 하였다. 총 55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504부가 회수되었으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22부를 제외한 482부를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대상자 중 여고생은 190명, 여대생은 292명이었으며 평균 신장은 161.74cm, 평균 체중은 52.85kg 이었다.

3. 연구도구

1) 신체관련요인

신체관련요인으로는 신장, 체중, 신체만족도, 다이어트 관심도, 체중조절 경험 변인을 채택하였으며 신장과 체중을 중심으로 비만도를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비만도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표준체중법을 사용하였다. 표준체중법은 체중을 측정하여 비만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표준체중을 (신장-100)×0.9으로 계산하여 현재체중을 백분화시키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비만지수가 20이상일 경우는 비만으로, 10이상이면 과체중, 비만지수가 -10이하이면 저체중으로 판단하였다.

2) 자아존중감 척도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5문항은 긍정문항으로, 5문항은 부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항상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였으며, 부정적으로 진술된 문항은 역산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척도의 구성을 위하여 문항분석을 한 결과 10문항 모두 사용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0.84$ 로 나타났다.

3) 내적통제력 척도

Rotter(1966)의 내외통제성향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6문항은 허구문항으로 되어 있어 15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문항은 내적통제성과 외적통제성을 반영하는 2문항이 한 쌍으로 구성되어있다. 채점은 외적 통제성을 나타내는 경우는 1점, 내적통제성을 나타내는 경우 2점으로 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통제성이 높으므로 해석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0.60$ 이었다.

4) 섭식장애행동 척도

Mehrabian과 Russell(1974)의 척도를 참고로 77문항으로 구성하였다(Mehrabian, 1987, 재인용).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는 1점, 매우 그렇지 않다는 5점을 부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상 섭식행동이 많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구성은 문항분석을 실시하여 문항전체와 각 문항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상관관계가 낮은($r=0.30$ 이하) 8문항을 제외시켰다. 69문항으로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을 하였으며 요인수를 3개로 정하여 varimax방법으로 직교회전을 실시한 결과 총 설명변량은 40.5%였다. 1요인은 29문항이 채택되었으며 설명변량은 21.6%였고, 다이어트, 체중증가에 따른 몰두와 공포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 다이어트 행동으로 명명하였다. 2요인은 20문항으로 설명변량은 10.2%였고, 조절되지 않는 섭식충동, 게걸스러운 섭식, 폭식 등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 폭식행동으로 명명하였다. 3요인은 19문항으로

설명변량은 8.7%였으며, 음식공포, 섭식불능, 식후구토, 식욕 부진 등의 문항을 포함하여 섭식억제행동으로 명명하였다. 척도의 신뢰도계수는 1요인(다이어트 행동)은 cronbach α =.96, 2요인(폭식행동)은 .88, 3요인(섭식억제행동)은 .85이었다.

4.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 12.0 program에 의해 수행되었다. 척도의 구성을 위하여 문항분석과 신뢰도, 타당도 검증 등을 하였다. 문항분석은 전체문항과 각 문항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신뢰도는 내적일치도에 의한 신뢰도검증(cronbach α)을 실시하였으며, 타당도분석은 요인분석으로 주성분분석을 하고 varimax 방법에 의한 직교회전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t-test,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과 회귀분석(regression)을 이용한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에 따른 신체관련변인, 내적통제력, 자존감과 섭식장애행동의 차이

여고생과 여대생에 따라 신체관련변인과 내적통제력, 자아존중감 그리고 섭식장애행동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신체관련변인의 차이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표 1>, 자아존중감, 내적통제력, 섭식장애행동의 차이는 t-test를 하였다<표 2>. 그 결과 표 1에서와 같이 신체관련변인에서는 비만도와 다이어트 관심도는 차이가 없었으며 신체만족도와 체중조절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여고생이 여대생보다 신체에 불만족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체중조절경험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2에서와 같이 내적통제력, 섭식장애행동은 여고생과 여대생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자아존중감은 $p<.001$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t=-6.80$)으로 나타나 여대생이 여고생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 신체관련변인의 차이

변 인	구 분	여고생		여대생		통계량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비만도	저체중	63	36.8	99	38.4	$\chi^2=.927$ df=3
	정상	84	49.1	128	49.6	
	체중과다	14	8.2	21	8.1	
	비만	10	5.8	10	3.9	
신체만족도	아주 불만족	34	17.9	24	8.2	$\chi^2=21.986^{***}$ df=4
	불만족	77	40.5	127	43.5	
	보통	65	34.2	118	40.4	
	만족	8	4.2	23	7.9	
	아주 만족	6	3.2	0	0.0	
다이어트 관심도	전혀 없음	2	1.1	0	0.0	$\chi^2=7.524$ df=4
	없음	2	1.1	3	1.0	
	그저 그렇다	22	11.6	31	10.7	
	관심 있음	87	46.0	110	37.9	
	매우 관심	76	40.2	146	50.3	
체중조절 경험	없다	37	19.5	51	17.6	$\chi^2=13.636^*$ df=5
	시도할 생각	52	27.4	55	19.0	
	1	14	7.4	32	11.1	
	2회	15	7.9	15	5.2	
	3회	45	23.7	63	21.8	
	계속조절	27	14.2	73	25.3	

* $p<.05$, *** $p<.001$

<표 2> 자아존중감, 내적통제력, 섭식장애행동의 차이

변인	여고생		여대생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아존중감	31.08(3.11/5점)	5.67	34.55(3.45/5점)	5.24	-6.80***
내적통제력	24.45(1.63/2점)	2.47	24.87(1.66/2점)	2.55	-1.76
다이어트행동	95.58(3.30/5점)	21.65	96.22(3.32/5점)	18.95	- .33
폭식행동	58.55(2.93/5점)	12.62	59.91(3.00/5점)	11.12	-1.21
섭식억제행동	39.12(2.06/5점)	9.41	40.65(2.14/5점)	8.84	-1.74

***p<.001

2. 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관관계

연구문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섭식행동은 여고생과 여대생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처음의 가정과는 달리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섭식행동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분석에서 종속변인인 섭식행동은 여고생과 여대생을 합하여 분석하는 한편 대상에 따라 매개변수의 차이가 있으므로 집단대상(여고생, 여대생)을 영향변수의 하나로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회귀분석에 앞서 변인들의 신체관련변인, 내적통제력, 자아존중감과 섭식장애행동(다이어트행동, 폭식행동, 섭식억제행동)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섭식장애행동의 하위영역 중 다이어트 행동은 다이어트 관심도($r=.371$), 체중조절경험정도($r=.371$)와는 정적 상관인, 신체만족도($r=-.549$), 자아존중감($r=-.138$)과는 부적 상관이었다. 폭식행동은 신체만족도($r=-.112$)와 내적통제력($r=-.138$)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섭식억제행동은 체중조절경험정도($r=.121$)와는 정적 상관인, 자아존중감($r=.126$)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즉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체중조절경험이 많을수록, 신체에 대한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다이어트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내적통제력이 낮을 때 폭식행동을 하는 경향이 높았다. 체중조절경험이 많고, 비만도가 높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섭식을 절제하고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직·간접효과

여자 청소년들의 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신체관련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심리적 변인인 내적통제력과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인

으로, 섭식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섭식장애행동은 다이어트행동, 폭식행동, 섭식억제행동의 3개영역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변인 중 대상은 명목변수이므로 가변수로 처리하여 사용하였으며, 표 3과 같이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는 $r=.647$ 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배제되었다. 또한 오차항간의 독립성 검증을 위하여 Durbin-Watson test를 실시한 결과 1.808~2.115로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본 자료는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시키고 있다. 경로분석의 결과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변인만을 경로모형에 도식화시켰으며, 각 변인간의 경로계수는 β 계수로 나타내었다.

<표 4> 와 <그림 2>에서와 같이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집단($\beta=.264$), 다이어트 관심도($\beta=.099$), 신체만족도($\beta=.901$)변인이었으며, 이 변인들의 설명력은 16.1%였다. 즉, 여고생보다 여대생들이,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내적통제력에는 자아존중감($\beta=.158$)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1%였다. 즉 내적통제력이 높은 사람이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섭식장애행동 중 다이어트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다이어트관심도($\beta=.168$), 체중조절경험($\beta=.273$), 신체만족도($\beta=-.251$), 비만도($\beta=.424$)였으며, 이 변인들의 설명력은 60.7%였다. 즉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체중조절경험이 많을수록,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비만도가 높을수록 다이어트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들의 총 효과는 비만도가 $\beta=.424$ 로 가장 높았다.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신체만족도($\beta=-.132$)와 내적통제력($\beta=-.119$) 변인이었으며, 이 변인의 설명력은 2.8%였다. 즉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내적통제력이 낮을수록 폭식행동이 많았다. 그 외 대상, 다이어트 관

<표 3> 관련변인들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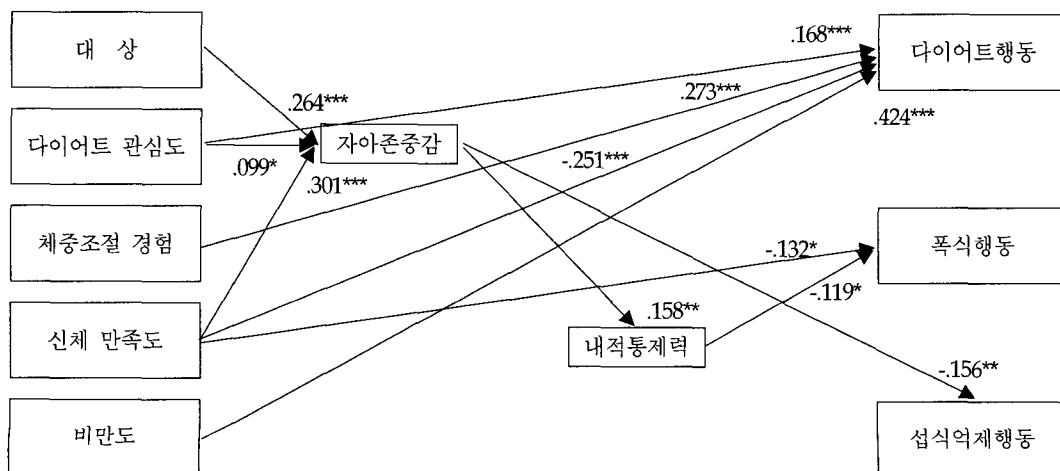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 다이어트 관심도	1.00									
2. 체중조절경험	.337**	1.00								
3. 신체만족도	-.201**	-.219**	1.00							
4. 비만도	.149**	.318**	-.447**	1.00						
5. 내적통제력	.049	.038	.106*	-.006	1.00					
6. 자아존중감	.068	-.037	.307**	-.120*	.186**	1.00				
7. 다이어트행동	.371**	.371**	-.549**	.647**	-.039	-.138**	1.00			
8. 폭식행동	.045	.034	-.112*	.010	-.138**	-.073	.152**	1.00		
9. 섭식억제행동	.070	.173**	-.093	.121*	-.024	-.126**	.248**	-.117*	1.00	
10. 집단	.094	.101	.081	-.055	.081	.299**	.016	.082	.056	1.00

*p<.01, **p<.001

<표 4> 섭식장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

변인	자아존중감 β	내적통제 β	섭식장애행동		
			다이어트행동 β	폭식행동 β	섭식억제행동 β
대상(고=0.대=1)	.264***	.027	.019	.091	.102
다이어트관심도	.099*	.045	.168***	.018	.006
체중조절경험	-.031	.007	.273***	.023	.100
신체만족도	.301***	.094	-.251***	-.132*	.007
비만도	.022	.048	.424***	-.059	.102
자아존중감		.158**	-.006	-.038	-.156**
내적통제			-.016	-.119*	.001
상수	23.528	20.979	85.875	77.016	45.278
F 값	17.711***	3.294**	90.921***	2.657*	3.359**
adjusted R ²	.161	.031	.607	.028	.040
D-W 계수	2.030	1.909	2.115	1.808	1.959

*p<.05, **p<.01, ***p<.001



<그림 2> 섭식장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경로분석

<표 5> 섭식장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효과

변 인	다이어트행동			폭식행동			섭식억제행동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대 상	.	.	.	-.005	.	-.005	-.041	.	-.041
다이어트 관심도	.168	.168	.	-.002	.	-.002	-.015	.	-.015
체중조절경험	.273	.273
신체만족도	-.251	-.251	.	-.138	-.132	-.006	-.047	.	-.047
비만도	.424	.424
내적통제력	.	.	.	-.119	-.119
자아존중감	.	.	.	-.018	.	-.018	-.156	-.156	.

심도, 신체만족도가 폭식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고생보다는 여대생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을수록,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이것이 내적통제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폭식행동이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변인들의 총 효과는 신체만족도가 직접효과 $\beta = -.132$ 에 간접효과 $-.006$ 을 합하여 총 효과는 $-.138$ 로 가장 영향력이 높았으며, 다음은 내적통제력, 자아존중감 순이었다.

섭식억제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beta = -.156$)이었으며 변인의 설명력은 4%였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섭식억제 행동이 많았다. 그 외 집단, 다이어트관심도, 체중조절경험정도, 신체만족도는, 자아존중감을 통하여 섭식억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고생보다는 여대생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을수록,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이것이 섭식억제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변인들의 총 효과는 자아존중감이 $\beta = -.156$ 로 가장 높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여자청소년들의 섭식장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직·간접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섭식장애행동을 다이어트행동, 폭식행동, 섭식억제행동으로 분류하였으며 신체관련변인, 내적통제력, 자아존중감이 섭식장애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효과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여고생 190명, 여대생 29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신체관련변인을 독립변인으로, 내적통제력과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인으로, 섭식장애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경로모형을 설정하였다. 자료분석은 t-test,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이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고생과 여대생간에 신체관련변인과 내적통제력, 자아존중감, 섭식장애행동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신체만족도와 체중조절경험, 자아존중감만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고생보다 여대생이 신체에 만족하는 비율이 높았고, 체중조절경험이 많았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그러나 섭식장애행동은 처음 연구의 가정과는 달리 여고생과 여대생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날씬함이 곧 아름다운 것이며 사회적인 성공과 관련이 있다는 사회문화적 압력 등이 대부분의 여성 사이에 내재되어 있어 섭식문제는 여자 청소년들의 공통 관심사가 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둘째,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체중조절경험이 많을수록, 신체에 대한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다이어트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내적통제력이 낮을 때 폭식행동이 많았다. 체중조절경험이 많고, 비만도가 높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섭식을 절제하고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상섭식행동과 자아존중감 사이에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섭식행동의 혼란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았다는 김은정(2004)의 연구와 일치하며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는 여성이 만족하는 여성보다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았다는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셋째, 섭식행동 중 다이어트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다이어트관심도, 체중조절경험, 신체만족도, 비만도였으며, 이 변인들의 설명력은 60.7%였고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것은 비만도였다. 즉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체중조절경험이 많을수록,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비만도가 높을수록 다이어트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신체만족도와 내적통제력 변인이었으며 이 변인의 설명력은 2.8%였다. 즉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내적통제력이 낮을수록 섭식충

동 행동이 많았다. 그 외 대상, 다이어트관심도,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이 폭식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섭식억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 이었으며 변인의 설명력은 4%였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섭식억제 행동이 많았다. 그 외 집단, 다이어트관심도, 체중조절경험정도, 신체만족도, 내적통제력 변인은 자아존중감을 통하여 섭식억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섭식장애행동에는 서로 다른 영역이 포함되어 있어 섭식장애행동으로 묶어 포괄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관련변인들이 섭식장애행동을 설명하는 설명력 또한 상당한 차이를 보여 신체관련변인과 자아존중감, 내적통제력은 섭식장애행동 중 다이어트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신체관련변인들은 다이어트행동에 주로 영향을 미쳤으며. 매개변인인 내적통제력과 자아존중감은 다이어트 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내적통제력은 폭식행동에, 자아존중감은 섭식억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아존중감이나 내적통제력과 같은 심리적 요인은 섭식장애행동의 보호요인인 동시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Berg 등(2002)의 견해처럼 자아존중감과 내적통제력은 섭식장애를 중재하고 치료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여중생과 여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김은정(2004)의 연구에서 외모관련 사회문화 태도는 이상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쳤으나 자아존중감은 이상섭식행동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다이어트 행동에는 신체관련변인만이 영향을 미쳤으며, 자아존중감과 내적통제력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다이어트행동은 보편화된 식습관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미 다이어트를 시행하고 있어 자아존중감이나 내적 통제력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비만도는 다이어트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높았으나 폭식행동과 섭식억제 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신체만족도가 다이어트행동, 폭식행동, 섭식억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만도보다는 비만수준에 대한 자기인식의 정도와 더 많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조성은(2004)의 연구와 일치하였으며, Thompson 등(1995)이 10~15세 여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지각된 체중이 신체이미지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다시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그 외 외모와 관련된 자기개념장애가 섭식장애와 관련된다는 선행연구(양경옥, 2004; Cash & Green, 1986; Markus et al., 1982; Mori et al., 1987; Sugarman et al., 1982)와 일치한다. 이러

한 결과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긍정적인 존중감을 가지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증진시킬 수 있는 내용과 비만에 대한 비합리적 사고를 합리적 사고로 바꿀 수 있도록 개입 전략이 필요하다 하겠다.

자아존중감은 섭식억제행동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폭식행동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선행연구결과(황관희·신혜숙, 2000; Button et al., 1996; Shislak et al., 1990)자아존중감이 섭식장애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Katz(1985)는 낮은 자아존중감이 신경성 식욕부진증을 발달시키는 위험요인으로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폭식자들이 정상인들보다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낮았다는 선행연구(안소연, 1994; 이상선, 1993; Kinder, 1991), 자아존중감이 정상 섭식, 섭식억제경향성, 폭식경향성과는 상관이 없었으나 폭식집단에서는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김미정(1999)의 연구와 자아존중감이 이상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김은정(2004)의 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문한나(2003)의 연구에서도 체중조절효능감은 폭식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나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자기통제력은 폭식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나 섭식억제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통제력이 부족한 사람은 적절한 섭식행동을 하지 못하여 폭식행동을 일으킬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자기통제가 낮을수록 섭식억제와 폭식행동에 영향을 주었으며, 폭식행동에 더 유의한 영향을 주어 자기통제가 낮을수록 폭식행동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양경옥(2004)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문한나(2003)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충동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모든 섭식장애행동(폭식행동, 다이어트, 섭식절제)을 많이 나타낸다고 하였고, Vitousek와 Manke(1994)의 연구에서는 신경성 식욕부진증 환자들은 내향적, 절제적이고 강박관념, 강박충동을 보이는 반면 신경성 폭식장애 환자들은 식욕부진증 환자들에 비해 보다 사회적이고 충동적이며 정서적인 불안정의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김민연(2001)도 체중의 내외통제소재를 제시하였으나 체중조절을 하는 섭식억제집단과 비섭식억제집단의 체중통제 소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신체관련변인과 자아존중감, 내외통제력은 섭식장애 행동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신체불만족, 우울감, 낮은 자아존중감 등이 이상섭식행동과 순환적인 관계에 있다고 Cooper와 Taylor(1988)가 제시한 것처럼 섭식장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연구모형을 다각도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낮은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을 가중시켜 그것이 문제 있는 섭식행동으로 표출될 수도 있으며, 한편 우울한 정서와 낮은 자아존중감이 신체불만족을 더욱 강화시켜 이것이 이상섭식행동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여고생과 여대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여학생과 남학생의 비교연구도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섭식장애행동은 신체건강 뿐 아니라 인지적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올바른 섭식태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소년 한 개인의 삶에 있어 전반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섭식장애행동은 철저하게 예방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왜곡된 섭식태도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접수일 : 2007년 03월 15일

□ 심사일 : 2007년 04월 04일

□ 심사완료일 : 2007년 06월 07일

【참 고 문 헌】

- 김규민(2000). 청소년의 섭식태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정(1999). 여고생의 섭식장애행동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존중감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연(2001). 비만인에 대한 태도와 체중통제소재가 섭식억제집단의 섭식장애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2004). 청소년기 여학생들의 체형인식도 및 체중조절 실태와 이상 섭식행동 관련 요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한나(2003). 비만인에 대한 태도, 충동성, 효능감과 섭식장애행동의 연관성.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주(2000). 여고생의 영양지식, 식행동, 체중 조절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소연(1994). 폭식행동집단의 신체불만족과 자아존중감 및 우울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경옥(2004). 체형에 대한 자기지각과 자기주의 및 자기통제가 섭식절제와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숙현(1994). 여대생의 섭식장애행동과 부모와의 애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선(1993). 여대생의 식사행동과 심리적 요인들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효(1997). 여고생의 우울감,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임순(1999). 여대생의 다이어트 및 식사절제 경향. 심리검사 및 상담연구, 4(1), 43-50.
- 정호선(1997). 여대생의 섭식장애행동과 자아존중감 및 우울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선일보. 2007. 2. 21일자.
- 조성은(2004). 여자 청소년들의 비만도, 비만수준에 대한 자기인식과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5(1), 129-140.
- 정승교(1997). 행동수정프로그램과 에어로빅 운동이 비만 여중생의 비만도, 식이행동,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기본간호학회지, 4(1), 103-117.
- 황란희 · 신혜숙(2000). 여고생의 섭식장애와 신체적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6(1), 129-141.
- Berg, P., Wertheim, E. H., Thompson, J. K. & Paxton, S. J.(2002). Development of body image, eating disturbance, and general psychological functioning in adolescent females: A replication using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in an Australian sampl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 32, 46-51.
- Button, E. J., Sonuga-Barke, E. J. S., Davies, J. & Thompson, M.(1996). A prospective study of self-esteem in the prediction of eating problems in adolescent school girls: Questionnaire findings. *The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5, 193-203.
- Cash, T. F. & Green, G.(1986). Body weight and body image among college woman: Perception, cognition and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0, 290-301.
- Cooper, P. J. & Taylor, M. J.(1988). Body image disturbance in bulimia nervosa.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53(2), 32-36.
- Ellis, A.(1974). A rational-emotive theory. In A. Button(Ed.). *Operational theories of personality*. New York: Brunner/Mazel.
- Grant, C. L. & Foror, I. G.(1986). Adolescent attitudes toward body image and anorexic behavior. *Adolescence*, 21, 269-281.
- Heatherton, T. F., Nichols, P., Mahamedi, F. & Kell, P. (1995). Body weight dieting and eating disorder symptoms among college students 1982 to 1992.

-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2, 1623-1629.
- Hill, A. J. & Bhatti, R.(1995). Body shape perception and dieting in preadolescent British Asian girls: Links with eating Disorder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7, 175-183.
- Katz, J. L.(1985). Anorexia nervosa.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3, 375-385.
- Kinder, B. N.(1991). Eating disorders(Anorexia and bulimia nervosa). In M. Hersen & S. M. Turner(Eds.). *Adult psychopathology and diagnosis(2nd)*. John Wiley & Son.
- Markus, H., Hamill, R. & Sentis, K. P.(1982). Think fat: Self-schemas for body weight and processing of weight-relevant informat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7, 50-71.
- Mehrabian, A.(1987). 조옥귀, 신동순 옮김(1998). *섭식특성과 기질*. 경남대학교 출판부.
- Miller, C. T. & Major, B.(2000). Coping with stigma and prejudice. In T. F. Heatherton, R. E. Kleck, M. R. Hebl, & J. G. HULL(Eds.), *The social psychology of stigma*(pp.243-272). Guilford Press.
- Mori, D., Chaiken, S. & Pliner, P.(1987). Eating lightly and the self-presentation of femininit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53, 693-702.
- Polivy, J. & Herman, C. P.(1985). Dieting and bingeing: A causal analysis. *American Psychologist*, 40, 193-201.
- Rosenberg, M.(1965). *The Self-Esteem Scale*. In J. P. Robinson, P. R. Shaver & I. S. Wrightsman(Eds.). *Measure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1)*. Academic Press.
- Rotter, J. B.(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General & Applied*, 80, 1-28.
- Shisslak, C. M., Pazda, S. L. & Cargo, M.(1990). Body weight and bulimia as discrimination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mong anorexic, bulimia and obese wome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9, 380-384.
- Strober, M. & Goldenberg, I.(1981). Ego boundary disturbance in juvenile anorexia nervosa.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7, 433-438.
- Sugarman, A., Quinlan, D. M. & Devenis, L.(1982). Ego boundary disturbance in anorexia nervosa: Preliminary finding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6, 455-461.
- Thompson, J. K., Coovert, M.D., Richards, K. J., Johnson, S. & Cattarin, J.(1995). Development body image, eating turbance, and general psychological functioning in female adolescents: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and longitudinal investig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7, 1-22.
- Vitousek, K. & Manke, F.(1994). Personality variables and disorders in anorexia nervosa and bulimia nervosa.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1), 137-147.